

Today's News Clip

오늘의 주요기사

2024년 1월 8일 월요일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목 차

江原日報	12면	권성동 국회의원 의정보고회	1
江原日報	10면	노용호 국회의원 의정보고회	1
강원도민일보	03면	권성동 "강릉과 함께 성장·발전하는 정치인 될 것"	1
江原日報	21면	20돌 맞은 드림프로그램 글로벌 스포츠 유산 ‘우뚝’	2
강원도민일보	21면	'글로벌 스포츠 유산' 동계올림픽·패럴림픽 선수 17명 배출	2
강원도민일보	01면	세계 겨울스포츠 중심, 강원특별자치도민이 세운다	3
강원도민일보	09면	성화투어 영상 '박수갈채' 협력 강조	3
KBS 춘천	온라인	‘중도유적박물관’ 지지부진...문화재청 “법 조치 검토”	4
江原日報	11면	“화합 통한 횡성 발전 도모”	5
江原日報	온라인	강정호 도의원 “속초 국제항 카페리 실적 저조, 활성화 나...	6
강원도민일보	온라인	강정호 강원도의원 "속초 국제항 여객·화물 운송 실적 저조....	7
G1방송	온라인	속초항 카페리호 지역 경기 활성화 취지 무색	7
강원도민일보	12면	강릉중앙인의 밤	8
江原日報	07면	"사업 발굴·입찰 확대... 건설 위기 극복하자"	8
강원도민일보	06면	송병관 회장 "회원 권익향상 건설기계 사업자법 제정"	9
江原日報	21면	도내 학생회장 출신들, 소외계층 연탄 나눔 훈훈	10
江原日報	온라인	[포토뉴스]고성축산농협 하나로마트 준공식	10
江原日報		“용문~홍천철도 예타조사 선정 성과”...유상범 국회의원 ...	11
강원신문	온라인	강릉 옥계면번영회, '2024년 옥계면 신년 인사회' 가져	12
江原日報		제12회 홍천강공공축제 개장...21일까지 17일간 행사 진행...	13
江原日報	21면	[동정] 강정호 도의원(속초)	15
강원도민일보	17면	[동정] 강정호(속초) 도의원	15
강원도민일보	15면	[동정] 최종수(평창) 도의원	15
江原日報	01면	"강원 미래 먹거리 찾아라" 道 대표단 'CES' 첫 파견	16
江原日報	02면	김 지사 “강릉 산불 이재민 추가 지원 논의”	16
江原日報	02면	"강원 미래 먹거리 찾아라" 道 대표단 'CES' 첫 파견	17
江原日報	07면	도내 10개 기업 글로벌 업체와 어깨 나란히	17

강원도민일보	01면	용문~홍천철도 예타 선정 상반기 조사 진행	18
강원도민일보	14면	"홍천철 예타사업 선정 환영, 통과 힘 모으자"	18
강원도민일보	10면	춘천시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 승부수 띄운다	19
강원도민일보	13면	'열린 스튜디오' 삼척 도계미디어센터 가동	19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평창 가스폭발 사고 경각 계기로	20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강원FC, 도민 응원에 보답할 때	21
江原日報	19면	[사설] 열흘 남은 청소년올림픽, 개최에 빈틈없어야 한다	22
江原日報	19면	[사설] 지역경제 활성화, 지자체 모든 역량 쏟아부어야	23

江原日報

2024 01 08 ()

12



권성동 국회의원 의정보고회 권성동(강릉) 국회의원 의정보고회가 지난 5일 강릉단오제전수교육관에서 권혁열 도의장, 김홍규 시장, 김기영 시의장 등 기관·단체장과 국민의힘 당원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江原日報

2024 01 08 ()

10



노용호 국회의원 의정보고회 국민의힘 노용호(비례) 국회의원의 의정보고회가 지난 6일 춘천 베어스호텔에서 권성동 국회의원,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박승선기자

강원도민일보

2024 01 08 ()

03

권성동 “강릉과 함께 성장·발전하는 정치인 될 것”

의정보고회서 총선 출마 공식화

국민의힘 권성동(강릉) 의원이 강릉 선거구에서의 5선 도전을 공식화했다. 권 의원은 지난 5일 강릉단오제전수교육관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정보고회에는 권혁열 도의장과 김홍규 강릉시장, 김기영 시의장, 전·현직 시도의원, 지역 원로를 비롯해

강릉 당원 및 시민 등 1000여명이 대거 참석, 강릉지역 내 지지세를 과시했다.

특히, 이날 권 의원은 총선 불출마·협지출마론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한 지지자의 질문에 “의원총회를 통해 여러 번 강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강릉을 위한 정책으로 역할을 다하겠다는 말씀 속에 제 뜻이 담겨 있다”고 답하며 사실상 4

월 총선 강릉 출마를 공식화했다.

또 권 의원은 SNS를 통해서도 “강릉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여러 성과를 내고, 이를 시민 여러분께 보고드릴 수 있어서 참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강릉의 발전은 정치인 권성동의 존재 이유”라며 “강릉과 함께 성장하는 정치인, 강릉과 함께 발전하는 정치인이 되겠다. 강릉시민의 지지와 응원을 발전하는 미래로 돌려 드리겠다”며 강릉 출마를 통한 총선 승리의 의지를 나타냈다. 이세훈

20돌 맞은 드림프로그램 글로벌 스포츠 유산 ‘우뚝’

2018평창기념재단 2024 개회식 ... 30개국 134명 참가
15일까지 평창·강릉 일원에서 다양한 아카데미 개최

올해 20주년을 맞는 2024 드림프로그램 개회식이 지난 5일 평창 대관령면 알펜시아 컨벤션홀에서 30개국 134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개회식은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권혁열 도의장을 비롯해 심오섭 동계특위위원장 등 도의원들과 20년전 드림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한 김진선 전 지사, 이정미 문화체육관광부 체육협력관, 심재국 평창군수, 유승민 2018 평창문화재단 이사장, 진종오 2024 강원 조직위원장, 김연아 2024 강원 홍보대사, 정진완 대한장애인체육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드림프

그램의 20년을 기념했다.

2004년 올림픽 유치공약으로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처음 시작한 ‘드림프로그램’은 글로벌 스포츠 유산사업을 대표하는 프로그램이다. 지금까지 총 97개국 2,500여명이 참여했으며, 150명 이상의 국제대회 출전선수와 17명의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출전선수를 배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오는 19일 개막하는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이하 ‘강원 2024’)에 총 14명의 선수가 알파인스키, 크로스컨트리스키, 프리스타일스키 종목에 출전해 활약할 예정이다.



◇올해 20주년을 맞는 2024 드림프로그램 개회식이 지난 5일 평창 대관령면 알펜시아 컨벤션홀에서 30개국 134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평창=권태명기자

김진태 지사는 “지난 20년간 우리는 드림프로그램과 함께 동계스포츠의 꿈을 키워왔고 앞으로도 후배들이 그 꿈을 이어갈 것”이라며 “올림픽의 꿈 실현과 함께 동계스포츠 활성화에 기여해온 드림프로그램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토마스 바흐 IOC위원장은 영상편지를 통해 “드림프로그램이아말로 올림픽의 가치와 정신을 잇는 진정한 유산”이라며 “2024동계청소년올림픽에서도 전 세계 많은 젊은이가 드림프로그램을 통해 가능성에 도전할 예정이고, 그 기회를 열어 준 강원도와 평창기념재

단 등에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드림프로그램’은 오는 15일까지 평창 및 강릉에서 강원 2024 출전 선수를 위한 사전 훈련프로그램과 지도자 교육, 지상 훈련 등 강화된 동계스포츠 아카데미가 진행된다.

평창=조상원기자 jsw0724@

강원도민일보

2024 01 08 ()

21

‘글로벌 스포츠 유산’ 동계올림픽·패럴림픽 선수 17명 배출

GANGWON 2024 강원도민과 함께 봄입니다

20주년 맞은 ‘드림프로그램’

올해 20주년을 기념하는 ‘드림프로그램’ 개회식이 지난 5일 평창 대관령면 알펜시아 컨벤션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개회식에는 전 세계 30개국 134명의 참가자와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권혁열 도의장, 심오섭 동계특위위원장을 비롯한 도의원들, 김진선 전 지사, 이정미 문화체육관광부 체육협력관, 심재국 평창군수, 유승민 2018 평창문화재단 이사장, 진종오 2024 강원 조직위원장, 김연아 2024 강원 홍보대사, 정진완 대한장애인체육회장,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회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글로벌 스포츠 유산사업을 대표하는 ‘드림프로그램’은 2004년 올림픽 유치공약으로 강원도에서 시작해 지금까지 총 97개국 2500여명이 참여해 150명 이상의 국제대회 출전선수와 17명의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출전선수를 배출하는 성과를 냈다. 특히 오는 19일 열리는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에도 드림프로그램 출신 선수 14명이 알파인스키, 크로스



지난 5일 올해 20주년을 기념하는 ‘드림프로그램’ 개회식이 평창 대관령면 알펜시아 컨벤션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권혁열 도의장,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회장, 김진선 전 지사, 이정미 문화체육관광부 체육협력관, 심재국 평창군수, 유승민 2018 평창문화재단 이사장, 진종오 2024 강원 조직위원장, 김연아 2024 강원 홍보대사, 정진완 대한장애인체육회장, 도의원, 전 세계 30개국 134명의 드림프로그램 참가자 등이 참석했다. 김정호

2004년에 올림픽 유치공약 시작
97개국 2500여명 프로그램 참여
“강원2024유산 새 비전 제시할 것”

컨트리스키, 프리스타일스키 종목에 출전해 활약할 예정이다. 이날 개회식에서 김진태 도지사는 20년 전 드림프

로그램을 처음 시작한 김진선 전 지사에 이을 기념하는 개인부문, 유승민 2018 평창문화재단 이사장은 정진완 대한장애인체육회장에 단체부문에 각각 감사패를 전달했다. 유승민 이사장은 “20주년을 기점 삼아 드림프로그램을 글로벌 대표스포츠 유산사업으로서 발전·계승시키는 것은 물론, 강원 2024의 유산으로 지속할 수 있는 새로

운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8평창기념재단(이사장 유승민)이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강원특별자치도가 후원하는 ‘20주년 드림프로그램’은 지난 5일 시작해 오는 15일까지 평창 및 강릉에서 11일간 진행된다. 2024출전 선수를 위한 사전 훈련프로그램과 지도자 교육, 지상 훈련 등 강화된 동계스포츠 아카데미가 진행되며,

특히 이번 행사의 개회식에는 올림픽메달리스트(유승민, 김연아, 진종오 등)가 참석해 후배 예비올림픽선수들을 응원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고, 폐회식에는 드림프로그램 출신의 ‘강원2024’출전선수들을 위한 결단식 운영, ‘강원2024’개회식의 ‘오륜기 운반수’로 참석하는 등 대회의 홍보를 위한 보조에도 크게 기여할 예정이다. 심예섭

2024 01 08 ()

강원도민일보

01

세계 겨울스포츠 중심, 강원특별자치도민이 세운다

강원도민일보 2024 강원청소년동계올림픽 D-11

본지·도민회 중앙회 주최주관
대회 성공개최 한마음대회 성황
전국 출향민 입장권 예매 약속
“아시아 첫 대회 강원 의 힘 필요”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감동이 재현될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이하 2024대회)이 오는 19일 개막하는 가운데 150만 출향도민이 함께하기로 결의했다. 강원 출향도민과 평창·강릉·정선·횡성 등 올림픽개최지 4개 시·군민 등이 함께하는 ‘2024 강원대회 성공개최 한마음대회’가 5일 평창알펜시아리조트 콘서트홀에서 강원도민일보와 강원특별자치도민회 중앙회 주최·주관으로 성황리에 열렸다.

대회개최(19일)를 꼭 2주일 앞두고 열린 이날 결의대회에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김기홍 강원도의회 부의장을 비롯,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회장, 김천수 강원도민회 중앙회장 등 전국출향도민, 심재국 평창군수, 최승준 정선군수, 양원모 강릉시 부시장, 김형

진형성군 부군수정실장 전국각지의 출향도민회 회원 등 300여명이 참석, 2024강원대회 슬로건인 ‘함께 할 때 빛나는 우리’를 한목소리로 외쳤다. 2024 강원대회 조직위원회에서는 진중오 공동조직위원장, 김철민 사무총장, 이관표 기획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도출신 인재들의 산실인 ‘강원학사’에서 수학 중인 강원 미래인재들이 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관계자들에게 2024대회 성공 개최를 향한 청소년들의 소망과 염원을 전달했다. 또 김천수 강원도민회 중앙회장 등 전국 출향도민들은 2024 대회 입장권 예매 및 관람을 약속하는 의미를 담아 대회 티켓 모형을 김 지사와 진 조직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이번 대회는 19일 오후 8시 강릉강릉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과 평창의 평창돔에서 이원으로 동시에 열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강릉·평창·정선·횡성 4개 시군에서 내달 1일까지 열린다.

김진태 도지사는 “이번 대회에서 가장 중요한 세가지는 첫째가 안전, 둘째 도안전, 셋째는 동참”이라며 “대회가 성공적 치러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천수 도민회중앙회장은 “우리 출

향도민들은 고향을 향한 무한한 사랑을 바탕으로 2018평창동계올림픽 당시 대회 성공개최에 큰 역할을 했다”며 “아시아 최초로 열리는 이번 대회도 특

별자치도민의 정신과 힘을 보여주자”고 강조했다.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회장은 “우리 강원도는 세계적인 국제행사를 연이어 성공 개최한 저력을 갖춘

곳”이라며 “역시 강원도가 국제행사라면 반드시 성공하는구나”란 자신감을 전세계에 떨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다. 박창현·이세훈 ▶관련기사 2·21면

강원도민일보

2024 01 08 ()

09

성화투어 영상 ‘박수갈채’ 협력 강조

◇…이날 행사장에는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성화가 그리스에서 채화된 순간부터 도내 18개 시·군에서 펼쳐진 성화투어 모습 등을 담은 동영상 5분간 방영. 참석자들은 그동안의 대회 준비 과정에 박수를 보내며 대회 성공 개최를 기원. 김기홍 강원도의회 부의장은 “어떠한 국제행사든 굉장히 잘 치러온 강원도가 이번 2024강원대회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강원’ 이름으로 우리 모두가 단합하고 협력해 나가자”고 강조.

2024 01 06 ()

KBS 춘천

‘중도유적박물관’ 지지부진...문화재청 “법 조치 검토”



9

KBS뉴스 제보전화 : 춘천 258-7400 강릉 640-7400 원주 760-7400

[앵커]

춘천 하중도 레고랜드 옆 '유적 박물관' 건립 사업이 지지부진합니다.

문화재청이 법적 조치까지 검토하겠다고 나서면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임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춘천 하중도의 '레고랜드' 주차장 바로 옆의 빈 땅입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지금쯤이면 '중도유적박물관' 건설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어야 합니다.

문화재청이 하중도에서 나온 유물과 유적을 보존할 시설 건립을 요구했고, 강원도는 박물관 건설을 약속하고 레고랜드 조성 사업 허가를 받았습니다.

박물관 완공 약속 시점은 내년(25년) 9월입니다.

하지만, 공사는 아직 첫삽도 못뜨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400억 원 정도로 추정되는데 사업을 맡은 강원중도개발공사에 이만한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김남균/강원중도개발사 기획경영본부장 : "시장 상황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자금의 압박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차입을 통해서라도 자금을 확보하려고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사업 인허가 조건 불이행으로 강원도가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오동철/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공동위원장 : "강원도가 하는 사업, 다른 사업들 여기에 대해서 아마 제재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해결해야 된다."]

실제로 문화재청이 법적 조치 검토에 들어가면서 이젠 강원도가 나설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기홍/강원도의회 부의장 : "강원도개발공사가 나서서 중도개발공사를 인수하든 아니면 도와주든, 도에서 이것을 어떻게든 뭐 관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관여를 하지 않을 까."]

결국, 2,000억 원 대의 대출금 상환에 이어, 레고랜드 개발사업과 관련된 책임을 강원도가 또다시 떠안게 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서영입니다.

촬영기자:김남범

임서영 mercy0@kbs.co.kr

江原日報

2024 01 08 ()

11



◇2024 횡성군 신년교례회가 지난 5일 횡성국민체육센터에서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화합 통한 횡성 발전 도모”

신년교례회 300여명 참석
횡성청년회의소 개최 성료

【횡성】2024년 횡성군 신년교례회가 지난 5일 횡성국민체육센터에서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화합을 통한 지역 발전 의지를 다졌다.

횡성청년회의소(회장:조영민)가 마련한 이날 교례회에는 유상범 국회의원, 김명기 군수, 김영숙 군의장, 한창수 도의회

부의장, 표한상 부의장, 최규만 도의원, 김은숙·백오인·박승남·유병화·정운현 군의원, 이동권 횡성경찰서장, 박순걸 횡성소방서장, 최종웅 NH농협 횡성군지부장 등 기관·단체장과 지역 농협 임원진, 횡성청년회의소 회원 등이 참석했다.

유상범 국회의원은 “불행과 행운은 늘 준비하고 노력해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며 “함께 행운을 잡고, 불행을 극복하자”고 했다. 유학렬기자

2024 01 07 ()

江原日報

강정호 도의원 “속초 국제항 카페리 실적 저조, 활성화 나서야”



강정호 도의원

속초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운항하는 국제 카페리 실적이 저조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정호(국민의힘.속초) 강원특별자치도의회원이 7일 강원자치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속초항 카페리는 지난해 11월20일부터 12월15일까지 8차례 운항해 여객 332명, 화물(차량) 12대를 수송했다. 같은 기간 동해항은 여객 3,056명, 화물(차량) 418대를 기록해 속초항과 큰 차이를 보였다.

강정호 의원은 “속초항 카페리가 출항한 지 두 달이 다 되어가지만 뚜렷한 실적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 체감하는 경제적 효과는 미진하다”며 “도는 지지부진한 속초항 국제 여객터미널 매입을 조속히 완료해, 현재 분리된 승객과 화물 운송을 일원화하고 속초항이 명실상부 환동해권 관광, 물류의 메카로 자리 잡도록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승객과 화물 유치 등 속초항 국제 카페리 활성화를 위한 강원도와 속초시의 적극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2024 01 07 ()

강원도민일보

강정호 강원도의원 "속초 국제항 여객·화물 운송 실적 저조... 대책 필요"

지난해 11월 국제 카페리가 취항하기 시작한 속초 국제항의 여객·화물 운송 실적이 저조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정호(속초)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7일 강원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0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집계 결과, 속초항 카페리는 여객 332명, 화물(차량) 12대 수송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동해항은 여객 3056명, 화물(차량) 418대로 집계돼 속초항이 크게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속초항 카페리가 출항한 지 두 달이 다 돼가지만, 뚜렷한 실적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 체감하는 경제효과가 미진하다"고 지적했다. 또, "강원도는 속초항 국제 여객터미널을 조속히 매입해, 현재 분리돼 있는 승객과 화물 운송을 일원화 해야 한다"며 "승객, 화물 유치 등 속초항 국제 카페리 활성화를 위한 정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 01 07 ()

G1방송

속초항 카페리호 지역 경기 활성화 취지 무색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속초항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항을 잇는 만 6천 톤 급 대형 여객선 카페리호가 지난해 11월 취항한 가운데, 지역 경기 활성화라는 기대와는 달리 여객 운송과 화물 운송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정호 도의원에 따르면, 매주 2차례 운항하며 승객 7백 명과 20피트 컨테이너 백 50개, 차량 3백50대를 실을 수 있는 카페리호는,

취항 이후 현재까지 승객 3백여 명과 컨테이너 12개 등을 수송하는 등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 의원은 "지지부진한 속초항 국제 여객터미널 매입을 조속히 완료해 현재 분리되어 있는 승객과 화물 운송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원도민일보

2024 01 08 ()

12



강릉중앙인의 밤 2024강릉중앙인의 밤 및 회장이 취임식이 지난 6일 세인트컨벤션웨딩에서 김남현 총동문회장, 이흥남 신임회장, 염돈호 전 강릉문화원장, 김화목 강릉문화원장, 심오섭·김용래 도의원, 김진용·김문섭·이용래 시의원을 비롯한 동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2024 01 08 ()

江原日報

07

“사업 발굴·입찰 확대... 건설 위기 극복하자”

대한건설협회 도회 신년인사회

유공 회원·인사 표창·감사패
동계 청소년올림픽 성공 염원

강원특별자치도 내 건설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갑진년 새해 건설산업 활성화를 통해 강원경제의 변화를 이끌어 갈 것을 다짐했다.

대한건설협회 강원특별자치도회는 지난 5일 춘천 스키컨벤션에서 ‘2024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진태 지사와 신경호 교육감, 한기호·허영·노용호 국회의원, 육동한 춘천시장,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 박기영 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진호 춘천시의장, 이금선 강원경제재단연합회장, 정영경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이병철 강원지방노동조합 등 내빈 및 회원 200여명이 참석해 새해 건설산업의 힘찬 출발을 응원했다.

최상순 대한건설협회 도회장은 신년사에서 “새해를 맞았지만 건설산업을 둘러싼 환경은 녹록치 않다”며 “협회는 올해 위기 극복을 위해 도내 중소건설업체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회원사의 입찰 참여 기회를 넓히겠다”고 밝혔다.



◇대한건설협회 강원특별자치도회 2024년 신년인사회가 지난 5일 춘천 스키컨벤션웨딩홀에서 최상순 도회장, 김진태 지사, 신경호 교육감, 한기호·허영·노용호 국회의원, 육동한 춘천시장,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 박기영 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진호 춘천시의장을 비롯한 내빈과 건설인들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신세희기자

김진태 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법 제6번 개정안에는 국가기관이 도내에서 건설사업을 할 때 지방계약법을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시키겠다”며 “새로운 국회를 구성하시는 분들도 전폭적으로 힘을 보태달라”고 말했다. 신경호 교육감은 “올해 교육청 본 예산이 3조9,000억원이 좀 넘는데 그 중 시설비가 엄청난 비중을 차지한다”며 “도내 기업들이 모든 일을 맡는 것을 우선으로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기호 국회의원은 “올해 건설산업도 쉽지 않겠지만 모두들 허리 꼭 펴고

회사도 강원도도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란다”고 했다. 허영 국회의원은 “소망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길 바라며 강원특별자치도법이 꼭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노용호 국회의원은 “최상순 회장을 중심으로 도내 건설인들이 똘똘 뭉치고 의원들이 서포트한다면 못할 일이 없다”고 덕담을 남겼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해 도내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 회원 30명에 대한 기관·단체장 표창 전달식이 진행됐다. 김소녀 성호건설(주) 대표, 염돈

실 토진종합건설(주) 대표, 정동기 동진건설(주) 대표, 정연권(주)신도시종합건설 대표, 조형범 에스지건설(주) 대표가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지역건설사들의 수주확대를 위해 힘쓴 유공 인사 9명은 도회장 감사패를 수상했다.

회원사 자녀들과 도내 건설관련 학과 학생들에게 3,200만원 상당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성공개최를 염원하는 시루떡 커팅식도 눈길을 끌었다.

김현아기자 hah@kwnews.co.kr

강원도민일보

2024 01 08 ()

06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강원춘천지회는 최근 춘천 미래컨벤션웨딩홀에서 2024년 정기총회 및 제10대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송병관 회장 “회원 권익향상 건설기계 사업자법 제정”

건설협 강원춘천지회장 이·취임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강원 춘천지회(회장 송병관)는 최근 춘천 미래컨벤션웨딩홀에서 2024년 정기 총회 및 제10대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제10대 회장 이·취임식에는 허영·노용호 국회의원, 정재웅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장, 김진호 춘천시의장, 최성현 강원관광재단 대표, 고효수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강원도회장, 타 시군 지회장 및 협의회 회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회기 전달에 이어 제10대 회장 이·취임식, 건설협찬가제창이 진행됐다.

송병관 제10대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건설협 본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

설기계 사업자 법이 건설협 회원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다. 말 보다는 행동으로 실천하며 업무를 추진하고, 춘천지회를 어느 지회 보다도 앞서가는 지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선우

江原日報

2024 01 08 ()

21

도내 학생회장 출신들, 소외계층 연탄 나눔 훈훈

강원리더연합회 연탄 봉사

강원특별자치도 내 학생회장 출신들이 취약계층을 위한 자발적인 연탄봉사에 나서 훈훈함을 주고 있다.

강원자치도 내 고교 학생회장 출신들이 만든 모임인 강원리더연합회(이하 KLA)는 지난 6일 춘천시 신사우동 일대에서 연탄봉사를 실시했다.

이날 봉사에는 박대현 강원자치도의원, 박노일 춘천시의원, 이상철 양구군의원, 강대규 국민의힘 춘천갑 예비후보를 비롯한 KLA 회원과 가족 80



◇강원리더연합회는 지난 6일 춘천시 신사우동 일대에서 회원과 가족 8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연탄봉사를 진행했다.

여명이 참가했다. 한기호 국회의원, 신경호 강원자치도교육감도 함께해 직접 연탄을 나르며 구슬땀을 흘렸다.

KLA는 이번 봉사를 위해

지난해 12월 한 달간 후원 릴레이를 진행해 총 3,000장의 연탄을 전달했다. 2015년부터 매년 연탄봉사를 이어온 KLA 회원들이 지금까지 기부한 연탄은

총 4만여장에 이른다.

신경호 강원자치도교육감은 “새해를 맞아 강원도의 든든한 기둥이 되어줄 학생회장 출신 청년들과 따뜻한 봉사를 함께 해 기쁘다”고 말했다.

손정희 KLA 회장은 “올해 성인이 된 회원들부터 초등학교 자녀를 둔 회원들까지 모두 모여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KLA의 설립 목적을 연탄 봉사로 실천했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과 후배 학생들을 위해 이바지할 수 있는 봉사 활동에 지속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김준겸기자

2024 01 07 ()

江原日報

[포토뉴스] 고성축산농협 하나로마트 준공식



고성축산농협 하나로마트 준공식이 지난 5일 고성축산농협 하나로마트 일원에서 이양수 국회의원, 함명준 군수, 김일용 군의장, 김용복 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 조합원 및 이사,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2024 01 06 ()

江原日報

“용문~홍천철도 예타조사 선정 성과”...유상범
국회의원 의정보고회 개최

국민의힘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국회의원은 6일 홍천문화예술회관에서 의정보고회를 열고 주요 의정활동 성과를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했다.

유 의원은 갈마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홍천읍), 기초생활거점육성(서면), 양덕원천 비점오염저감사업(남면), 항체산업 비즈니스센터 건립(북방면), 숲속의 어린이 공원 조성(영귀미면), 문현교 소교량 긴급 정비(내촌면), 화촌면 군업리 양지교 수해복구(화촌면), 풍암정 수장 노후시설 정비 및 시설확장(서석면), 자은3리 취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두촌면), 권돌지구 다목적농촌생활용수개발(내면) 등 지역 10개 읍·면의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특히 지난 5일 확정된 용문~홍천 광역철도의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을 의정활동 최대 결실로 내세웠다.

또 국회에서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정보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윤석열 캠프 법률지원단장,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 국민의힘 강원도당위원장 등 지난 4년간 주요 핵심당직에서 활동한 내용도 소개했다.

유상범 의원은 “홍천군민들의 과분한 지지와 성원 속에 ‘국회의원 유상범’으로 의정활동한 지 4년째”라며 “용문~홍천 광역철도 건설사업 예타 선정 등 지역의 오랜 숙원과 공약들이 가시적인 성과들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홍천과 같은 지방과 농촌도 수도권 대도시 못지 않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의정보고회에는 신영재 홍천군수, 이영욱·홍성기 강원자치도의원, 김광수·용준식·황경화 홍천군의원 등을 비롯해 지역 주민 500여명이 참석했다.

강원신문
지방시대 글로벌 리더 gwnews.org

2024 01 06 ()

강릉 옥계면번영회, '2024년 옥계면 신년 인사회' 가져

황미정 기자

"박문근 번영회장, 건강하고 하나되는 옥계 사회 만들기 위해 마련"



강릉 옥계면번영회는 5일 오전 11시, 탑스텐 호텔 1층 그랜드볼룸홀에서 희망찬 2024년 계묘년 새해를 맞아 신년인사회를 가졌다.

강릉 옥계면번영회(회장, 박문근)는 5일 오전 11시, 탑스텐 호텔 1층 그랜드볼룸홀에서 희망찬 2024년 계묘년 새해를 맞아 신년인사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박문근 옥계면번영회장을 비롯한 김홍규 시장, 권성동 국회의원, 박호균 도의원, 이용래 시의원, 최용규 옥계면장을 포함한 지역 내 기관·단체장과 면민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간 신년 인사, 케익 절단식 등 순서로 진행되었다.

박문근 옥계면번영회장은 "이번 행사는 희망찬 2024년 새해를 맞아 옥계면민의 힘과 지혜를 모아 건강하고 하나되는 옥계 사회 만들기 위한 새로운 한 해의 소망과 발전을 기약하고자 마련되었다"고 말했다.

황미정 기자 gwnews@hanmail.net

2024 01 05 ()

江原日報

제12회 홍천강공공축제 개장...21일까지 17일간 행사 진행

21일까지 홍천강 둔치주차장 일대에서 개최
6년근 인삼 배합된 사료 먹인 인삼송어 활용
이상기후 대비 부교낙시터.루어낙시터 조성



홍천군과 (재)홍천문화재단은 5일 홍천강 둔치주차장 일대에서 '제12회 홍천강공공축제' 개장식을 개최했다.



홍천군과 (재)홍천문화재단은 5일 홍천강 둔치주차장 일대에서 '제12회 홍천강공공축제' 개장식을 개최했다.



홍천군과 (재)홍천문화재단은 5일 홍천강 둔치주차장 일대에서 '제12회 홍천강공공축제' 개

장식을 개최했다.



홍천군과 (재)홍천문화재단은 5일 홍천강 둔치주차장 일대에서 '제12회 홍천강공공축제' 개장식을 개최했다.

'인삼'과 '송어'의 특별한 만남 '제12회 홍천강공공축제'가 5일 홍천강 둔치주차장 일대 실내낙시터에서 개장식을 갖고 21일까지 17일간의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축제 개장식에는 신영재 홍천군수, 박영록 홍천군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이영욱.홍성기 강원자치도의원, 김성운 홍천경찰서장, 김숙자 홍천소방서장, 박주선 홍천문화원장, 전명준 홍천문화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행사장을 찾은 관광객들은 송어 얼음낙시, 루어낙시터, 부교낙시터, 맨손인삼 송어잡기, 가족실내낙시터, 무료 민속얼음 썰매 등 주요 프로그램들을 체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개장식에 앞서 신영재 홍천군수, 박영록 홍천군의장, 전명준 홍천문화재단 이사장 등은 부교낙시터.루어낙시터 입구에서 핫팩 및 차 나눔행사를 진행하고 축제장을 방문한 관광객들을 맞이했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제12회 홍천강공공축제에서 낙시체험과 함께 다양한 먹거리.즐길거리를 느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전명준 홍천문화재단 이사장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온난화 기후에도 끄떡없는, 그리고 인삼 송어를 통한 차별화된 축제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축제에 NH농협 홍천군지부(지부장:전성열), 하이트진로 강원공장(공장장:이인철), 홍천양수건설소(소장:민병준), 소노인터내셔널 비발디파크는 경품 등을 지원했다.

홍천강공공축제는 유사 행사와의 차별화를 위해 6년근 인삼이 배합된 사료를 먹여 송어의 맛과 크기는 물론 육질까지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행사기간 송어 얼음낙시, 루어낙시터, 부교낙시터, 맨손인삼 송어잡기, 가족실내낙시터, 무료 민속얼음 썰매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江原日報

2024 01 08 ()

21

◇강정호도의원(속초)은 8일



오후 6시 속초시
아남프라자 20층
에서 열리는 민
족통일 속초시협
의회 신년하례식

및 회장 이·취임식에 참석.

강원도민일보

2024 01 08 ()

17



강정호(속
초) 도의
원은 8일
오후 6시
아남프라
자에서 열리는 민족통
일 속초시협의회 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한다.

강원도민일보

2024 01 08 ()

15



최종수(평
창) 도의
원은 8일
오전 10시
30분 눈마
을예식장에서 열리는
대관령청년회의소 신
년 인사회에 참석한다.

2024 01 08 ()

江原日報

01

“강원 미래 먹거리 찾아라” 道 대표단 ‘CES’ 첫 파견

〈세계 최대 IT 가전 전시회〉

김 지사·대학 총장 등 동행
본보 도내 최초 美 현지 취재

첨단 산업의 메카를 꿈꾸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세계 최대 IT 가전 전시회인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 대규모 참관단을 파견한다. 특히 이번 CES에 김진태 지사뿐만 아니라 김현영 강원대 총장, 최양희 한림대

총장 및 관계자 등도 참관, 강원자치도의 미래 산업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7면

김진태 지사를 비롯한 도 대표단은 8일부터 13일까지 미국을 방문한다. 9일부터 12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4’에 참가를 위해

서다. 김 지사를 비롯한 도 대표단의 CES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표단은 9일 글로벌기업인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등 한국 대기업 부스를 방문한 뒤 유레카파크 한국관 3곳, 바이오웰니스관 7곳 등 도내 기업 전시관도 살펴본다.

이때 김현영 강원대 총장과 이광호 LINC3.0사업단장, 임현승 SW

중심대학사업단장 등이 김 지사와 동행, 향후 강원자치도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또 최양희 한림대 총장도 행사 동안 CES를 둘러보고 글로벌대학 선정에 따른 향후 계획 등을 구상한다.

신형철기자 chiwoo1000@kwnews.co.kr

2면에 계속

2024 01 08 ()

江原日報

02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5일 강릉원주대에 설치된 강원2024 대테러·안전대책본부 사무소에 방문해 김홍규 강릉시장, 정일섭 도 글로벌본부장 등과 함께 테러 대응 방안 및 대비 태세를 점검 중이다. 강릉=권태명기자

김 지사 “강릉 산불 이재민 추가 지원 논의”

강원2024 테러 대비 태세도 점검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5일 강릉을 방문해 산불 이재민을 위로하고,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대테러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

김 지사는 이날 지난해 4월 발생한 강릉 산불로 강릉시 저동, 안현동 일대에 설치된 임시조립주택에 거주하는 이재민들을 만나 조립주택 내부 벽면과 바닥, 화장실 등 실내 공간 온도 등을 확인하고 동절기 애로사항을 들었다.

김 지사는 “불편한 컨테이너 생활

에 추위와 폭설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강릉시와 협력해 이재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가울 설에는 세대당 500만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방한용품 등도 부족함이 없도록 수량을 확보하겠다”며 “임시조립주택에 1년 더 거주하시는 이재민들의 전기료 감면 연장을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임시조립주택에는 117세대 254명의 이재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바닥 열선과 전기담요, 열난방기, 난방텐

트 등 난방용품이 구비돼 있다. 한국 전력공사의 전기료 지원은 지난해 6월부터 올 6월까지로 전액 지원 9개월, 50% 지원 3개월이다.

이에 앞서 김 지사는 김홍규 강릉시장과 함께 강릉원주대에 설치된 강원2024 대테러·안전대책본부 사무소를 방문, 테러 대응 방안 및 대비 태세도 점검했다.

김 지사는 “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서는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민·관·군이 힘을 합쳐 강원2024의 안전을 책임져 달라”고 당부했다.

류호준·권태명기자

2024 01 08 ()

江原日報

02

‘강원 미래 먹거리 찾아라’ 道 대표단 CES 첫 파견 -1면에서 계속

강원일보도 장현정 경제팀장을 도 내 언론 최초로 CES 현장에 파견, 변화하는 첨단 산업 현장을 직접 확인한 뒤 생생한 내용을 독자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김 지사는 10일 LA로 이동해 주부권 강원특별자치도 거주(캘리포니아) 도민회장 취임식에 참석한 뒤 간담회를 갖는다. 이어 11일에는 LA 소재 CHA 할리우드

프레스비테리언 메디컬 센터를 방문한다. 도내 대학병원과 임상, 연구 및 실증협력, 기업 진출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강원 바이오 특화단지 추진 협력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강원자치도 관계자는 “바이오헬스 분야를 중심으로 도내 기업들의 대외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초석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2024 01 08 ()

07

江原日報

/ 강원자치도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4 참가 /

도내 10개 기업 글로벌 업체와 어깨 나란히

전 세계 3,500여개사 참여... 혁신제품 경연장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인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는 전 세계 소비자 전자기술 동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회다. 특히 매년 혁신제품의 경연의 장으로 자리매김하면서 강원특별자치도 내 기업들도 대거 참여하고 있다.

1967년 미국 뉴욕에서 처음 열려 매년 평균 174개국, 약 3,200개 기업이 참석해 IT, 5G, 디지털 헬스케어 등의 제품을 선보인다. 주최는 CTA(미국소비자기술협회), 주요 행사로는 매년 주목해야 하는 산업의 대표기업이 발표하는 키노트 연설, 전시회, Great Minds 포럼(사

이버 보안, 지속가능한 식량공급망), 175개의 콘퍼런스 세션 등이 마련된다.

‘CES 2024’에는 삼성전자, LG 전자, 구글, 퀄컴, 아마존, 소니 등 글로벌 기업을 포함해 총 3,500여개 업체가 참가를 확정했고, 한국 기업은 500여곳이 함께한다. 도내에서는 기업 10곳이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인다. 유레카파크 한국관에는 강릉 (주)택산(대표:권종산·메타버스 기반 소프트웨어 시스템), 양양 (주)모토모(대표:임용순·블랙박스 보조배터리, 인터페이스), 춘천 (주)엠아이제이(대표:허진숙·이명케어 솔루션)

등 3곳이 전시관을 운영한다.

바이오헬스관에는 원주 (주)오톨(대표:오준호·휴대용 엑스선 촬영장치), (주)크레도(대표:최종국·심폐소생술 보조장비), (주)메쥬(대표:박정환·심전도 원격 모니터링 플랫폼), (주)퓨런헬스케어(대표:강병모·의료용 바이오 피드백 기기), (주)아이도트(대표:정재훈·진단·예측 AI 솔루션), (주)지오비전(대표:김윤·안면골 골절 진단 AI 솔루션), 춘천 메디칼아이피(대표:박상준·디지털트윈 기반 의료 메타버스) 등 7곳이 부스를 마련한다. 지난해 도내 참가기업 4곳은 상담 126건, 상담액 373만달러, 계약주진액 57만달러의 성과를 거뒀다. 장현정기자

강원도민일보

2024 01 08 ()

01

용문~홍천철도 예타 선정 상반기 조사 진행

기재부 11개 사업 대상 확정
조사기간 12개월 최대 24개월

용문~홍천 철도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기획재정부는 5일 김윤상 제2차관 주재로 올해 첫 재정사업평가위원회회를 열고 용문~홍천 광역철도를 비롯한 11개 사업을 예타 대상사업으로 확정했다.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상반기부터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한다. 용문~홍천 철도 사업은 양평 용문면에서 홍천읍까지 32.7km를 단선철도로 연결하며, 총사업비 8442억원이 투입된다. 2027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용문~홍천 철도 사업은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선정을 계기로 16년만에 해당 조사를 다시 받는다. 지난 2007년 중앙선 복선철

도 개량사업의 연계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당시 진행된 예비타당성조사에선 통과하지 못했다.

강원도는 예타당성조사 운용 지침이 개정, 비수도권 사업의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의 평가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사업추진의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김진태 지사는 “평가항목을 꼼꼼하게 챙겨 어렵게 잡은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덕형 ▶관련기사 14면

강원도민일보

2024 01 08 ()

14

“홍천철 예타사업 선정 환영, 통과 힘 모으자”

홍천 지역사회 조기착공 염원
균발 등 당위성 확보 다각 대응
“인구 감소 ‘예타면제’ 지속 요구”

용문~홍천 광역철도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자 홍천지역사회가 한 목소리로 반기고 나섰다.

기재부는 지난 5일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문~홍천 광역철도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당초 발표 예정일인 지난해 12월 말 기재부 제2차관의 사직으로 발표가 미뤄지는 상황 속에 지역주민들의 간절함이

재확인되기도 했다. 향후 1~2년의 기간에 걸쳐 예비타당성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7일 본지취재 결과, 홍천군·군의회·추진위·군이장연합회 등 지역사회는 경제성 극복을 위한 노력 외에도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하는 등 다각도로 대응하고 있다.

군은 양평군, 정부 관계자 등을 만나 용문~홍천 철도의 당위성을 적극 알리고 설득할 예정이고, 홍천철도 범군민추진위원회는 대통령 공약인 만큼 계속해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요구하고 있다. 최이경 군부의장은 24년전 수립된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이 지역소멸위기 등 현재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준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용문~홍천 광역철도는 홍천군이 수도권 배후도시로 성장할 발판을 마련하고, 미래 발전에 디딤돌 역할을 할 중요한 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규설 홍천철도범군민추진위원장은 “2011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했을 때보다 인구가 1만명 정도 줄어든 상황이라 경제성이 아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예타면제’를 계속 요구해 나갈 것”이라며 “청량리~용문 고속철도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어 용문~홍천 철도가 생기면 ‘서

울~홍천’ 철도가 되는 것으로 이를 적극강조해나가겠다”고 했다.

이상필 전국이동장연합회 홍천군지회장은 “모든 군민들의 염원인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을 환영한다”며 “다만, 마치 예타가 이미 통과된 것처럼 확대해석되거나, 선거에 이용돼 알맹이 없이 결론나지 않도록 더 힘을 쏟을 때이므로 이장들도 최선을 다해 철도 조기착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용문~홍천 광역철도는 경의중앙선이 운행 중인 양평 용문에서 홍천을 잇는 32.7km의 단선철도로 총사업비 8442억(국비 70%, 지방비 30%)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유승현 yoosh@kado.net

2024 01 08 ()

강원도민일보

춘천시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 승부수 띄운다

10

시 문체부 공모 이달 제출예정
수도권 1시간 접근성으로 어필
지역민 결의문 채택·지지 선언
육 시장 17일 시민 토크콘서트

속보=국제 규격 스케이트장 유치에 도전장을 낸 춘천시(본지 2023년 12월 14일자 4면 등)가 붙임 행사를 통해 춘천 유치의 당위성 확산에 나선다. 7일 본지 취재 결과 춘천시는 이달 한 달 간 집중적으로 국제 스케이트장 춘천 유치를 위한 붙임 행사를 진행한다.

앞서 지난해 말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태릉선수촌내 국제스케이트장을 대체할 400m 규격의 훈련 복합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부지선정 공모에 돌입했다. 사업에는 국비 2000억원이 투입된다. 이같은 국제스케이트장 공모는 태릉선수촌이 조선왕릉세계문화유산 등재로 철거 절차를 밟으며 이뤄졌다.



국제스케이트장을 춘천에 유치해야 한다는 지지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서면 이장협의회(사진 왼쪽)와 신북읍부녀회가 최근 국제스케이트장 춘천 유치를 촉구했다.



춘천시는 송암스포츠타운 일원을 적합지로 보고 신청서 작성 작업에 들어갔다. 신청서 접수 기간은 2월 8일까지이며 춘천시는 이달 안에 제출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신청서에는 춘천이원조빙상도시이며 수도권과 1시간 안팎이면 이동이 가능할 정도로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점 등이 담길 전망이다.

춘천은 1962년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권 우두강 빙상대회, 1971년 제52회 전국체육대회 동계 빙상대회를

치렀고, 1991년 동계아시안게임도 개최했다.

지역사회 전반의 유치 열기도 점차 고조되고 있다. 남산면·퇴계동·서면·신북읍 등 25개 읍·면·동을 중심으로 스케이트장 유치 촉구 결의문 채택과 지지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춘천시체육회, 춘천시장애인체육회도 국제스케이트장 유치에 힘을 모은다. 육동한 시장은 "육동한 시장은 오는 17일 춘천미술관 일원에서 춘천시민들과 토크콘서트를 갖

고 국제스케이트장을 춘천에 조성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직접 설명한다.

더욱이 내달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강원특별자치도 일원에서 열리는 전국동계체전 중 빙상 종목이 춘천에서 개최, 춘천시는 전국 빙상 관계자들에게 춘천의 뛰어난 인프라를 소개하고 지지를 호소할 계획이다.

김윤철 춘천시 체육과장은 "국제스케이트장이 춘천에 조성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힘을 모으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오세현

강원도민일보

'열린 스튜디오' 삼척 도계미디어센터 가동

13

도 남부권 최초 폐광지역 설립
학교 미디어 수업 등 시범운영
지역주민 체험·전문인력 양성

강원 남부권 최초로 폐광지역에 설립된 삼척 통합 영상미디어센터(이하 도계미디어센터)가 3개월여간의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이달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삼척시는 도계를 도계대한길 24(도계 유리게스트하우스)에 연면적 222.36㎡, 지상 1층 규모로 도계미디어센터를 설립, 이달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곳은 멀티미디어실, 다목적실, 라디오녹음실, 편집실, 기자재실 등을 갖추고 시민들의 창조적 미디어 활동과 소통 능력 강화를 위한 미디



강원 남부권 최초로 폐광지역에 설립된 삼척 통합 영상미디어센터가 이달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 곳에는 멀티미디어실과 라디오녹음실 등을 갖추고 있다.

어 참여활동 지원 역할을 담당한다.

오는 3월까지 라이브커머스, 보이스 라디오, 유튜브 콘텐츠 제작, 방송 체험을 할 수 있는 스튜디오가 추가 구축돼 운영된다.

도계미디어센터는 앞서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시민들을 대상으로 숏폼 제작, 라디오제작, 극영화제작 등의 다

양한 시범프로그램을 운영한 데 이어 도계전산정보과와 도계중, 도계야동센터 등과 연계한 미디어 수업으로 참여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또 올해 상설교육으로 숏폼제작, 라디오제작, 디지털드로잉, 라이브 스트리밍 등 청소년 방학 특강을 계획하고 있다. 여기에 다큐멘터리와

극영화 제작 등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미디어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미디어 전문가 과정을 운영하는 등 전문인력 양성에 나선다.

이 밖에 경로당·마을회관·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영화관을 비롯해 도계지역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미디어리터러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한국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와 협력해 원탁을 내 학생,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미디어 지역공헌 사업에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도계미디어센터를 통해 다양한 미디어 관련 프로그램과 상영사업, 장비·시설 지원 등을 진행함으로써 시민과 함께 즐기고 소통하는 미디어 커뮤니티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정민 koo@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4 01 08 ()

/ 19

평창 가스폭발 사고 경각 계기로

-겨울엔 에너지 수요 많아 안전에 '허של함' 없어야

2명이 전신 화상을 입는 등 5명 중경상과 건축물과 차량 등 광범위하게 재산 손실을 부른 새해 첫날의 평창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가스폭발 사고 현장을 담은 영상물이 속속 공개되면서 안전 불감증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안전관리자 책임하에 실시해야 할 충전작업이 규정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가스 유출 직후에 충전소 측에서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해 폭발을 막지 못하는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폐쇄회로TV 및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놀란 주민들이 짧은 시간에 대피하는 등 긴박했던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기체 상태 가스는 불과 몇 십 초 사이에 충전소 밖 도로와 주택가를 순식간에 뒤덮었습니다. LPG 충전소에 가스가 많이 새고 있다며 처음 신고한 것도 주민으로 확인됩니다. 경찰은 사고 발생 원인을 조속히 밝혀 사고 반복이 없도록 경각심을 높여야 합니다.

특히 상시로 대량의 가스를 취급하고 있어 안전관리에 전문적이어야 할 충전소에서 허של한 관리로 폭발사고가 발생했기에 다른 충전소 주변 주민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어 사안이 중대합니다. 더욱이 1월 19일부터 2월 1일까지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가

평창에서 개최돼 국내외에 이목이 쏠려 있습니다.

국제 스포츠 이벤트 개막을 앞두고 있기에 경찰 측은 수사력을 집중해 가능한 대회 개최 전에 완벽한 수사 결과를 내놓아야 합니다. 소방, 가스안전공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합동 감식을 벌여 주요 증거물에 대한 감정에 들어갔고 경찰 측은 전담팀을 꾸려 가스 주입과정과 누출 경위를 조사 중인 긴하나 철저하게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지방자치단체는 가스사고의 다수를 차지하는 LPG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대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겨울철은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고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환기 시간을 줄이면서 크고 작은 가스 누출 및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소식이 연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1월 6일 정선에서는 거실에 서 숯으로 요리하던 중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가족이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앞서 4일엔 영동고속도로 한 휴게소와 강릉 주택가에서 '가스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있었고 3일엔 춘천에서 가스보일러 가동 과정에서 가스가 누출돼 구급차로 이송됐습니다. 겨울축제 및 관광명소에 방문객이 몰리는 때이므로 인명 피해가 없도록 업계에서는 안전 관리에 더 각별해야 할 것입니다.

강원도민일보

2024 01 08 ()

/ 19

강원FC, 도민 응원에 보답할 때

-강등 위기 넘기고 코치진 구성, 심기일전 기대

강원FC가 2024시즌 코칭스태프를 구성하고 출항 준비를 마쳤습니다. 지난 시즌 부진의 늪에 섰어 나오지 못했던 팀은, 올해엔 상위권 진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지난 4일부터 강릉에서 훈련을 시작했으며, 오는 18일 튀르키예 전지훈련을 떠나는 등 본격적인 담금질에 돌입합니다. 지난해 줄곧 하위권에 머물렀지만, 팬들은 응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원FC는 그동안 도민들이 보냈던 뜨거운 성원에 보답해야 합니다. 박진감 넘치는 경기와 승리에 대한 의지를 보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난 시즌은 위기의 한해였습니다. 리그 11위에 머무르며 악전고투를 거듭하다 결국 최용수 감독이 물러나고 윤정환 감독이 새 사령탑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반전의 기회를 쉽게 얻지 못했습니다. 리그 12개 팀 가운데 최저 득점을 기록하며 골가뭄에 시달렸습니다. 팀은 2019시즌 기록한 16패 이후 최다 패배 기록과 동률을 기록하며 자존심을 구겼습니다. 다행히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김포의 역습 축구를 제어하며 2경기 1실점으로 1부 리그에 잔류할 수 있었습니다. 탄탄한 수비력이 빛났던 경기였습니다.

강등 직전 극적으로 살아남은 배경에는 팬들의 열정적인 응원이 있었습니다. 강원 FC를 찾은 홈경기장 관중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전년보다 약 200% 이상 증가한 총 12만여명이 경기장을 메웠으며, 경기당 평균 관중 수는 2배가량 증가한 6400여명을 기록했습니다. 공식 응원단인 나르샤와 도민들은 최종 목표인 잔류를 위해 관중석을 가득 채우고 열띤 성원을 보냈습니다. 김포 FC와의 승강 PO1차전에서는 원정석 675석이 전석 매진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새로 꾸려진 코치진에 대한 기대는 어느 때보다 큼니다. 정경호 수석코치와 최효진 코치, 송창호 코치, 전상욱 GK코치, 정문호 피지컬 코치는 뛰어난 실력과 화려한 경력으로 강원팬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해 윤정환 감독 선임 당시부터 강원과 함께했던 정경호 수석코치는, 삼척 출신으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강원 유니폼을 입어 팀에 대한 애정이 남다릅니다.

강원FC는 열화와 같은 팬들의 응원에 부응하는 경기를 펼쳐야 합니다. “마지막에 웃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출사표를 던진 윤정환 감독과 코치진, 선수들이 한마음이 돼 상위권에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선수들이 선전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江原日報

2024 01 08 ()

/ 19

열흘 남은 청소년올림픽, 개최에 빈틈없어야 한다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이하 청소년올림픽)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청소년올림픽은 오는 19일부터 2월1일까지 14일 동안 평창군, 강릉시, 정선군, 횡성군 등 4개 지역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세계의 청소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할 때 빛나는 우리’를 주제로 화합하고 도전 정신을 키우는 지구촌 종합스포츠 대축제 ‘어게인 평창’이다. 1988년 서울올림픽과 2002년 한일월드컵,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로 국제사회에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던졌던 값진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올림픽이 강원특별자치도로 거듭난 평화의 성지에서 펼쳐진다.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에 평화를 추구하는 올림픽 정신을 다시 접화할 수 있는 기회다. 반드시 전 세계 청소년 화합과 인류 평화의 여정을 이어가는 빛나는 무대로 만들어야 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청소년올림픽을 앞두고 지난 4일 주개최지인 강릉과 평창을 찾아 조직위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위생은 대회의 인상을 좌우하는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부분인 만큼 과도할 정도로 챙겨 달라”면서 “겨울에 대회가 열리기 때문에 화장실 동파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해서도 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부실하게 운영됐던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대회의 전철을 밟지 말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 달라는 의미다. 잼버리대회는 전라북도가 이 행사를 지렛대 삼아 지역 발전을 도모했지만 오히려 막대한 예산을 쓰고도 여름철 위생 문제 등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국가의 망신살만 자초했다. 청소년올림픽이 개최되는 평창군, 강릉시, 정선군, 횡성군은 날씨가 춥다. 도는 물론이고 개최 시·군은 자존심을 걸고 청소년올림픽 정신을 구현하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한과 등 여러 위기 상황에 대해 빈틈없이 대비해야 한다.

청소년올림픽은 향후 대한민국 및 지역의 미래와 연동돼 있는 중요한 국제 스포츠 행사다. 따라서 올림픽 유산을 계승·발전시키고 나아가 지역과 국가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발판이 돼야 한다. 또한 잼버리대회의 국제적 수모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다. 준비 부족과 운영 미숙으로 파행을 거듭한 잼버리대회를 철저히 복기하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청소년올림픽 개막은 이제 열흘밖에 남지 않았다. 우리 모두 평창동계올림픽의 열정을 다시 살려내야 한다. 강원자치도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 지역의 큰 발전을 이뤄냈다. 한 치의 누수도 없는 청소년올림픽 준비가 필요하다.

江原日報

2024 01 08 ()

/ 19

지역경제 활성화, 지자체 모든 역량 쏟아부어야

강원일보가 지난해 12월6일부터 28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내 경제계 기관·단체장, 기업인, 금융인, 연구가 등 1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국내 및 강원경제 전망 설문조사’ 결과는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강원경제인들은 올해도 불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하면서 최우선 과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SOC 확충’을 꼽았다. 즉, ‘강원특별자치도가 올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경제 정책’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29.02%가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추진’을 답했다.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로 활력을 잃은 지역경기 회복을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쏟

아부어야 한다. 올 한 해는 내려앉은 지역의 성장 동력을 되살려내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에 불을 지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올 경제성장률은 글로벌 침체와 물가 상승, 고용·경상수지 악화로 불투명한 상태다. 수출 등 주요 부문이 지난해보다 감소하거나 둔화세로 돌아설 수 있어 강원 경제의 한파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하루아침에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생산과 소득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는 없겠지만 지속적인 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미래 전략산업 육성과 지역 특화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지역 발전 중장기 계획과 로드맵이 더욱 중요해졌다. 안팎에 도사린 위험을 예의주시하면서도 지역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출 기업들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해 성장 불씨를 살려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수출이 활기를 띠다면 답답했던 지역경제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수출이 지역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보다 반가운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올 상반기에 지역경제의 역동성을 높일 처방전을 총동원해야 한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 새해 예산 집행을 이에 맞춰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더욱이 유동성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

원,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 확충 등 경제 위기 극복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소기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는 즉각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 집행

본보, 국내 및 강원경제 전망 설문조사

지역경제 활성화·SOC 확충이 최우선 과제

예산 조기 집행·선택과 집중의 투자가 중요

계획을 세워야 한다. 코로나19 이후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특단의 예산 집행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한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나열식보다는 선택과 집중의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예산 집행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재정을 집행하더라도 실제 효과를 얻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점까지 감안해 조기 집행의 시간표를 꼼꼼하게 짜야 한다. 그리고 상반기에 가능한 모든 정책을 동원해 지역경제가 선순환의 길로 접어들 수 있도록 해야 하반기에 결실로 나타난다. 자치단체는 주민을 위한 각종 정책 발표에 그치지 않고 정책의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세밀하게 살피기 바란다.